



국립전주박물관  
Jeonju National Museum

**보도자료**

■ 국립전주박물관 2021 - 08  
■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김왕국 학예연구사  
TEL 063-220-1038 kkingdom77@korea.kr

■ 2021. 05. 13. 배포

■ 따로 붙임: 사진 자료  
■ 총 3매

따뜻한 친구, 함께하는 박물관

## 국립전주박물관, 고창 봉덕리 유적 출토 금동장식신발 보물(제 2124호) 지정 기념 테마전 개최

국립전주박물관(관장 홍진근)은 소장품이 새롭게 보물(제 2124호)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테마전 <전북의 새로운 보물, 고창 봉덕리 유적 출토 금동장식신발>을 5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개최한다. 이 유물은 나주 정촌고분 출토품과 함께 삼국시대 금동장식신발로는 처음으로 보물로 지정됐다.

고창 봉덕리 고분 유적은 삼국시대 무덤으로 1998년 지방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견됐다. 이 가운데 4호 구덩식(竪穴式) 돌방무덤에서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금동장식신발을 비롯하여 중국제 청자, 작은 단지로 장식한 구멍항아리, 청동잔과 잔받침, 큰칼, 금귀걸이 등이 도굴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출토됐다. 이 유물들은 당시 고창지역에 있었던 정치 세력의 위상과 함께 백제 중앙 세력뿐만 아니라 중국, 일본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.

금동장식신발은 삼국시대 장례 풍습을 잘 보여주는 껌묻거리(副葬品) 중 하나이다. 또한 당시 금속공예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작됐다. 고창 봉덕리에서 출토된 금동장식신발은 옆면을 거북이 등껍질 문양으로 나누고, 그 안에 용과 새, 사람 얼굴 모양을 새겼다. 그리고 바닥면에는 용을 정교하게 투조(透彫)하여 당시 백제의 뛰어난 금속공예 수준을 보여준다. 한편 에다후나야마 고분(江田船山古墳)이나 카모이나리야마 고분(鴨稻荷山古墳) 등 6세기 대의 일본 고분에서도 비슷한 금동장식신발이 출토되어 당시 정치적으로 밀접했던 백제와 왜의 상황을 알 수 있다.

홍진근 국립전주박물관장은 “이번 기회에 박물관을 방문하셔서 새로운 전북의 보물 탄생을 같이 축하해 주시라” 며, “고대 사람들의 수준 높은 공예 기법과 미의식을 느껴보시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.” 고 시민들과 지역사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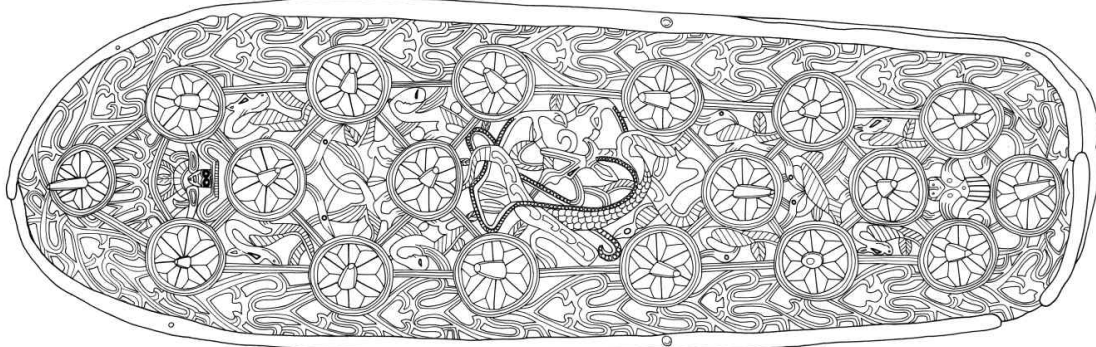
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.



고창 봉덕리 유적 출토 금동장식신발



금동장식신발 출토 모습



금동장식신발 바닥 문양

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주박물관  
김왕국 학예연구사(063-220-1038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